

# <인문사회계열>

문제지

	모집단위								
	성명								
	수험번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20px;"> <tr> <td style="width: 12.5%;"></td> </tr> </table>							

※ 문제지는 고사 종료 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2014학년도 수시모집 통합사고력전형

### 문제수 및 고사 시간

문제수	시간	배점비율
3	10:00~11:20(80분)	총 점수의 [문제 1]은 40%, [문제 2], [문제 3]은 각각 30%.

### 수험생 유의사항

- 계산기와 통신기기 등은 휴대할 수 없으며, 휴대시 부정행위자로 처리.
- 답안지는 1매만 사용해야 하며, 2매 사용시 무효(0점) 처리.
-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볼펜, 사인펜 사용가능, **연필, 샤프 사용불가**).
- 문제지의 여백을 연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답안지를 수정할 경우 두 줄을 그어 수정하시오.**
- **답안 작성시 “0점” 처리 기준**
  - 답안지에 답 이외의 특정 표기나,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시를 할 경우.
  - 흑색 필기구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색깔이 있는 필기구 사용금지).
  - 수정이 가능한 연필류로 작성한 경우.
  -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한 경우.
  - 답안지의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 답안을 작성한 경우.

### 답안지 작성요령

1. [문제 1]은 네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번호 [1.1], [1.2], [1.3], [1.4]를 반드시 서두에 명기한 뒤, 번호 순서대로 답안을 작성하시오.
2. [문제 2]는 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번호 [2.1], [2.2], [2.3]을 반드시 서두에 명기한 뒤, 번호 순서대로 답안을 작성하시오.
3. [문제 3]은 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번호 [3.1], [3.2]를 서두에 반드시 명기한 뒤, 번호 순서대로 답안을 작성하시오.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옛날에 어떤 농사꾼이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느 큰 기와집에 들어가 하룻밤 재워 달랬었다. 집주인은 글 깨나 읽은 벼슬아치인데, 재워달라는 사람 재워는 안 주고 종이에 글자 석자를 쓱쓱 써서 눈앞에 들이미는구나. “자, 읽어 보게나. 이게 다 무슨 잔가?”

들여다보나마나 뭐 흰 것은 종ियो 검은 것은 글자지. 평생 땅만 파먹고 산 농사꾼이 한자를 알 턱이 있다. 입맛만 짹짹 다시고 있으니 벼슬아치 하는 말이, “이건 하늘 ‘천’ 자고, 이건 임금 ‘군’ 자고, 이건 아비 ‘부’ 잔데, 사람이 하늘, 임금, 아비도 몰라봐서야 어찌 사람이라 하겠나. 우리 집에는 사람만 채우지, 사람 아닌 것은 못 채우네.” 이러거든.

농사꾼이 그 말을 듣고 벼슬아치에게 되물었었다. “그럼 내가 한 번 물어보겠소이다. 빨강고 예쁘고 말랑말랑한 자는 무슨 자요? 해와 함께 나왔다가 구름과 함께 들어가는 자는 무슨 자요? 비 오는 날 도롱이 쓰고 눈에 들어가는 자는 무슨 자요?”

“앵?” 벼슬아치가 그만 말문이 막혀서 입만 실룩실룩하고 있으니 농사꾼이 심드렁하게 하는 말이, “그래, 그걸 모른단 말이오? 빨강고 예쁘고 말랑말랑한 자는 오미자요, 해와 함께 나왔다가 구름과 함께 들어가는 자는 그림자요, 비 오는 날 도롱이 쓰고 눈에 들어가는 자는 눈임자요. 사람이 그런 것도 몰라서야 어디 사람이라 하겠소? 나는 사람 집에서나 자지, 사람도 아닌 것 집에서는 안 자요.”

(나)

**양반** 나는 사대부(士大夫)의 자손인데……

**선비** 뭐 사대부? 나는 팔대부(八大夫)의 자손일세.

**양반** 허허, 팔대부는 또 뭐야?

**선비** 팔대부는 사대부의 갑절이지.

**양반** 우리 할아버지는 문하시중(門下侍中)이거던.

**선비** 아 - 문하시중 그까짓 거? 우리 아버지는 바로 문상시대(門上侍大)인데……

**양반** 문상시대! 그건 또 뭐야?

**선비** 문하(門下)보다는 문상(門上)이 높고 시중(侍中)보다는 시대(侍大)가 더 크단 말일세.

**양반** 그것 참 별꼴을 다 보겠네.

**선비** 지체만 높으면 제일인가?

**양반** 그러면 또 무엇이 있단 말인가?

**선비** 첫째 학식이 있어야지. 나는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다 읽었네.

**양반** 뭇이, 사서삼경? 나는 팔서육경을 다 읽었네.

**선비** 도대체 팔서육경은 어디 있으며 대관절 육경은 또 뭐야?

**초랭이** (방정맞게 양반과 선비 사이로 뛰어 들며) 헤헤헤, 나도 아는 육경 그것도 모르니까? 팔만대장경, 중의 바래경, 봉사의 안경, 약국의 길경, 처녀 월경, 머슴의 새경.

**이때** 그거 다 맞아.

**양반** (흐뭇한 표정으로) 이것들도 아는 육경을 선비라는 자가 몰라?

(다)

그의 고향에선 어려운 말을 많이 썼다. 예를 들어 “안항(雁行)이 몇인고?”라는 질문은 “형제 자매가 몇이나?”는 뜻이다. 다른 지방에서 장가오는 새신랑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사람대접을 못 받았다. 그는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가르쳐야 할지 고민하다가 가르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소통의 언어가 아니라 저희 동아리를 과시하고 타인을 소외시킬 목적으로 악용되는 권위적 언어 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반평생 글만 써왔는데도 군청에만 가면 찢찢매는 경험을 하자 글을 쓸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묻는다고 했다. “소통을 원하는가, 과시를 원하는가?”

통섭의 시대라고들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만의 언어로 이야기한다. 『생각의 탄생』의 저자 루트 번스타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수학자는 오로지 수식 안에서, 작가는 단어 안에서, 음악가는 음표 안에서만 생각한다. 의도적으로 언어의 칸막이를 칠 때, 언어는 하이데거가 말한 ‘존재의 집’이 아니라 ‘권력의 집’이 돼버린다.

상대의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전무한 곳이 있다. 바로 정치판이다. 그곳엔 여당의 언어, 야당의 언어가 있을 뿐, 국민의 언어는 없다.

(라)

지나간 성인들의 가르침은 하나같이 간단하고 명료했다. 들으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학자라는 사람들이 튀어나와 불필요한 접속사와 수식어으로써 말의 갈래를 쪼개고 나누어 명료한 진리를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자신의 문제는 접어 둔 채, 이미 뺏어버린 말의 찌꺼기를 가지고 시시콜콜하게 뒤적거리며 이러쿵저러쿵 따지려 든다. 생동하던 언행은 이렇게 해서 지식의 울타리 안에 갇히고 만다.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는 것은 대단한 일이 못 된다. 아는 것을 어떻게 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인간의 탈을 쓴 인형은 많아도 인간다운 인간이 적은 현실 앞에서 지식인이 할 일은 무엇일까? 먼저 무기력하고 나약하기만 한 그 ‘인형의 집’에서 나오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명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무학(無學)이란 말이 있다. 전혀 배움이 없거나 배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학문에 대한 무용론도 아니다. 많이 배웠으면서도 배운 자취가 없는 것을 가리킴이다. 학문이나 지식을 코에 걸지 않고 지식 과잉에서 오는 관념성을 경계한 뜻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지식이나 정보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롭고 발랄한 삶이 소중하다는 말이다. 여러 가지 지식에서 추출된 진리에 대한 신념이 일상화되지 않고서는 지식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 지식이 인격과 단절될 때 그 지식인은 사이버요 위선자가 되고 만다.

[1.1] ‘학문이나 지식은’을 주어로 하여, 제시문의 공통된 주제를 문장 형식을 갖추어 서술하시오.

[1.2] 다음 <보기>에 비추어 (가)의 벼슬아치의 잘못을 인(仁)과 서(恕)의 관점에서 서술하시오(각각 아래의 밑줄 친 말로 시작하여 2~3 문장으로 완성할 것).

<보기>

유학의 근본 사상은 인(仁)과 서(恕)를 철학적 기초로 한다. ‘인’이란 모든 인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인간은 서로에게 상호 합리적으로 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서’는 강제와 폭력, 억압 등과 같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서로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역지사지(易地思之)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뜻한다.

- 인(仁)의 관점에서  
 서(恕)의 관점에서

[1.3] (다)의 밑줄 친 ‘권력의 집’과 연관 지어 (가)의 벼슬아치의 언어를 설명하고, (라)의 밑줄 친 ‘인형의 집’과 연관 지어 (나)의 양반과 선비의 언어를 설명하시오(각각 아래의 밑줄 친 말로 시작하여 2~4 문장으로 완성할 것).

- (가)의 벼슬아치는  
 (나)의 양반과 선비는

[1.4] 위의 제시문을 참조하여, 학문과 지식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공정 평서문 2~5 문장으로 완성할 것).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억압받고 있는 의견이 때로는 올바른 것인지도 모른다. 그 의견을 억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의견의 진실을 부정할 것이 분명하지만 그들의 판단만이 언제나 옳다는 보장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 누구도 전 인류를 대신해서 문제를 결정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판단력을 빼앗을 만한 권위를 가질 수 없다. 모든 토론을 침묵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절대 무오류성’을 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면서 살아간다. 사람들은 자신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실제로 자신이 판단을 내릴 때에는 이를 거의 문제 삼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확실하다고 느끼는 것이 잘못된 판단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가끔은 자신의 의견이 반박당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정정하는 데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들이라도, 그들의 의견 가운데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나 그들이 항상 존경하고 있는 사람들과 공통된 부분에만 무조건적인 신뢰를 둔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판단에 대해 확고한 자신을 갖지 못하면 못할수록 ‘세상’ 일반의 절대 무오류성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개인에게 ‘세상’이란 그가 접촉하는 일부의 세계, 즉 그가 속해 있는 당파, 종파, 사회 계급을 뜻한다.

(나)

정당한 법과 부당한 법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봅시다. 부당한 법은 수와 힘의 측면에서 다수에 속하는 그룹이 소수 그룹에 대해서 준수를 강요하면서도 자신들은 전혀 구속을 받지 않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당한 법은 다수 그룹이 자신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면서도 소수 그룹에게 대해서 준수를 강요하는 법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정당하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부당한 법도 있습니다. 저는 허가받지 않은 시위행진에 참여한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시위행진을 허가 사항으로 규정된 법령 그 자체는 부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 법령이 흑백 차별을 유지하고 미연방헌법 수정 조항 제1조의 평화적인 집회와 항의를 할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용된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 됩니다. 저는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자들처럼 법률을 빠져나가거나 무시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무정부 상태가 될 것입니다. 부당한 법률을 위반하는 사람은 솔직하고 겸허한 태도를 가져야 하며 어떤 형벌도 달갑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양심적으로 볼 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법률을 위반하되 지역 사회의 양심에 그 법률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서 징역형도 불사하는 사람이야말로 법률을 지극히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다)

의무, 너 위대하고 숭고한 이름이여! 너는 환심을 살 만한 사랑받을 아무 것도 네 안에 갖지 않은 채 복종을 요구한다. 너는 아무런 위협도 하지 않으면서, 법칙만을 제시한다. 이 법칙은 스스로 마음 속에 들어가, 비록 늘 지켜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의지에 반하면서까지 존경을 얻는다. 이 법칙 앞에서 모든 경향성은 비록 속으로는 반발할지라도 침묵하고 만다. 너의 그 품위의 근원은 무엇이며, 경향성과 온갖 인연을 도도하게 끊어 버리는 그 고귀한 혈통의 뿌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인간만이 자신에게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의 긴요한 조건은 도대체 어떤 뿌리에서 유래하는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을 감성 세계의 일부로서의 자신을 넘어서게 하는 바로 그것, 즉 인격성이다. 그것은 전체 자연의 질서로부터의 독립성이자 자유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고유한, 즉 자기 자신의 이성에 의해 주어진 순수한 실천 법칙에 복종하는 한 존재자의 능력이다. 도덕법칙은 신성하다. 인간은 분명 신성하지 않으나, 그의 인격 속의 인간성은 그에게 신성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가 의욕하고, 또 우리가 지배하는 모든 것은 단지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오직 인간, 그리고 그와 더불어 있는 모든 이성적 피조물만이 목적 그 자체이다.

**(라)**

무엇하랴  
 콧잔등 타고 내려  
 입술 위에 고인 눈물 위에  
 그대 이름 적신들  
 타고 내려 가슴에서 애를 태우고  
 발등 위에 떨어진 이슬 위에  
 그대 이름 새긴들

무엇하랴  
 벽은 이리 두텁고 나는 갇혀 있는 것을  
 무엇하랴  
 철창은 이리 매정하고 나는 묶여 있는 것을  
 오 새여 하늘의 바람이여  
 나래 펴서 노래에 살고  
 나래 접어 황혼에 깃드는 새여 바람이여

나에게 다오 노래의 날개를  
 나에게 다오 황혼의 보금자리를  
 만인의 입술 위에서 노래가 되기도 하고  
 대지의 나무 위에서 비둘기의 보금자리가 되기도 하고  
 압제자가 묶어 놓은 세상의 모든 매듭을 풀어  
 인간의 팔에서 날개가 되고 바람이 되기도 하는  
 새여 바람이여 자유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2.1] (가), (나), (다), (라)의 공통된 주제가 '자유'라고 할 때, '자유'를 핵심어로 하여 (가), (나), (다), (라) 각각의 주제를 짧게 요약하시오.

[2.2] 아래 <보기>의 상황에서 처벌받을 위험에 처한 사람이 (나)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취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을 서술하시오.

**<보기>**

지금 황제께서는 천하를 하나로 통일하셨고, 옳은 일과 잘못된 일을 분명하게 가려 주는 큰 법령과 도리 역시 하나로 제정하시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들은 개인적으로 학문을 가르치고 배우며, 나라에서 새로운 법령과 제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치는 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라에서 새로운 법령이 나왔다는 말을 들으면, 제각각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익히고 배운 학문의 잣대를 들이대고 비판합니다. 신은 간청합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로 하여금 진(秦)나라에 관한 내용 이외의 모든 기록을 불태워 버리도록 하십시오. 또, 박사관(博士官)이 아니면서 『시경(詩經)』이나 『서경(書經)』 그리고 제자백가의 서적을 간직하고 있다면, 모두 지방 관리들에게 바치도록 해, 이것들을 모두 모아 불태워 버리십시오. 또한, 감히 『시경』이나 『서경』을 들먹이며 현실을 비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일가족을 모두 몰살시키십시오. 만약 나라의 관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체포하지 않았다면, 역시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죄로 처벌하십시오.

**[2.3]** 한국 역사에서, 일본제국주의 강점기에 식민 통치에 부역한 일본인과 조선인에 대해 “조선인에 대한 특별한 악의나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특별한 충성심은 없었고,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변호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를 아래 <보기>에서 제시한 제2차 세계대전의 유대인 학살 책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 사례에 비추어 비판하되, 반드시 (가), (나), (다) 모두의 내용을 활용해 서술하시오(답안 작성시 (가), (나), (다)를 반드시 명기할 것).

<보기>

아돌프 아이히만은 아주 근엄한 태도로 교수대로 걸어갔다. 그는 붉은 포도주 한 병을 요구했고 그 절반을 마셨다. 그는 그에게 성서를 읽어주겠다고 제안한 개신교 목사 윌리엄 헐 목사의 도움을 거절했다. 그는 두 시간밖에 더 살 수 없기 때문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감방에서 형장에 이르는 50야드를 조용히 그리고 푹푹이 걸어갔다. 간수들이 그의 발목과 무릎을 묶자 그는 간수들에게 험령하게 묶어서 자신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은색 두건을 머리에 쓰겠다고 물었을 때 그는 “나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는 완전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말로 남긴 기괴한 어리석음보다도 이 점을 더 분명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잠시 후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독일 만세, 아르헨티나 만세, 오스트리아 만세. 나는 이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장례 연설에서 사용되는 상투어를 생각해 냈다. 교수대에서 그의 기억은 그에게 마지막 속임수를 부렸던 것이다. 그의 ‘정신은 의기양양하게 되었고’, 그는 이것이 자신의 장례식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 이는 마치 이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이루어진 이 오랜 과정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교훈을 요약하고 있는 듯했다. 두려운 교훈, 즉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을. 그는 결코 유대인 혐오자가 아니었고, 그는 결코 인류의 살인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의 죄는 그의 복종에서 나왔고, 복종은 덕목으로 찬양된다. 그의 덕은 나치스 지도자들에 의해 오용되었다. “나는 괴물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만들어졌을 뿐이다. 나는 오류의 희생자다.”라고 아이히만은 말했다.

[문제 3]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서구화의 바람이 동양을 향해 불어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모든 국가는 서구 사회와 더불어 이 운동에 동참하여 문명의 열매를 맛보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문명은 홍역과 같지만, 여러 이로운 점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홍역보다는 이롭다. 그러므로 국가는 문명에 거역할 수 없으며 이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문명화 과정에서 보수적인 정부는 걸림돌일 뿐이며 이를 뒤집어야만 일본에서 문명화를 이룰 수 있다.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얻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시아를 벗어나는 것’이다.

(나)

미국을 끌어들이는 경우 만약 그들이 재물을 요구하고 우리의 약점을 알아차려 어려운 청을 하거나 과도한 경우를 떠맡긴다면 거기에 응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서학에 종사하여 재화를 이루고 농·공을 일으킨다고 하고 있지만, 원래 우리에게도 예부터 재용과 농·공에 대한 훌륭한 법규들이 있는 바 그것이 서학에 종사함으로써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야소교 전래가 해롭지 않다고 한 것은 사교를 조선에 유포시키려는 간계이니 주공, 공자, 주자의 교를 더욱 밝힘으로써 온 백성이 단결하여 그 사람 귀류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3.1] 제시문 (나)의 입장과 일치하는 글을 <보기> ①~⑤에서 모두 고르고, 고른 글과 (나)의 공통된 주장을 1~2 문장으로 정리해 쓰시오.

<보기>

① 서양의 이른바 교(敎)를 금수(禽獸)의 도(道)라 함은 어떤 이유인가. 중국인은 오행(五行)의 온전한 기를 받고 태어나 학문을 주장하여 사물의 최상에 서 있고, 이목이 총명하고 마음이 성스럽고 슬기와 재주가 있어 이른바 인도(人道)를 다했다. 우리나라는 이(夷)의 후예로 비록 오행의 편벽된 기를 얻었으나 음양으로 나눈다면 동북의 양방(陽方)이고 또 일출(日出)의 땅이라 문명의 기운을 얻었다. 고로 이목과 심지가 중국 성인을 스승으로 삼아 비슷하게 된 즉 사람의 도를 세워서 이렇게 찬연하다. 고로 중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은 모두 인류이다. 서양은 오행의 편벽된 기를 얻으면서도 서남의 음방(陰方)에 있다. 음방에서는 이익을 주로 한 즉 이목과 심지가 통하는 것은 불과 금수의 기능이다. 고로 서양의 사람은 모두 금수이다.

② 러시아인들과 대다수 슬라브 민족은 그리스인들과 더불어 종교적 진실의 살아 있는 전통, 즉 정교의 주요 수호자가 되었다. 그것은 슬라브인들 특히 러시아인들의 정신에 근거를 둔 양도 할 수 없는 성취이다. 러시아 국가의 정치 활동이 갖는 또 다른 특성은 시민들 사이, 시민과 국가 사이에 평등한 관계가 확립되어 있다는 것, 즉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확립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어떤 사람들은 노예근성을 러시아인들의 천성적 요인으로 간주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유는 러시아인들의 수중에서 온갖 방종과 남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 완전히 반대되는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 즉 러시아인들만큼이나 큰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그것을 남용하는 경향이 거의 없는 민족은 존재한 적이 없거나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영역에서도 러시아에서는 정치적 이상과 경제적 이상 사이에 어떤 모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모순은 유럽인들의 삶에—즉 군사적 전제주의와 사회 혁명 사이에 있는 위험한 바다에서 역사적 항해를 시작한 삶에—대제앙을 가져다줄 우려가 있다. 유럽의 사회 구조보다 러시아의 사회 구조에 더 큰 우위를 가져다주며, 러시아의 사회 구조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을 가져다주는 요인은 농민들의 토지이고 토지의 공동 소유이다. 이러한 건전한 러시아의 사회경제적 구조 위에 놓인 슬라브 문화역사적 유형은 공정하고 정상적인 체계를 처음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

<보기>

③ 과연 그렇다면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이는 오직 밖으로 널리 구미 각국과 신의로써 친교하며, 안으로는 정략을 개혁하여 우매한 백성들을 문명의 도로써 교육하며, 상업을 흥룡시켜 재정을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또 군대를 기르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영국은 마침내 거문도에서 철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밖의 여러 나라도 역시 침략의 뜻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상업을 주로 하여 서로 산업의 크고 많음을 자랑하고 경쟁하는 때이거늘, 아직도 양반을 제거하여 그 뿌리를 뽑지 않는다면 국가의 패망은 기어코 앞서 기다리는 꼴이 될 뿐입니다. 진하께서 이를 철저히 반성하시어 하루 빨리 무식 무능하고 수구 완고한 대신배를 축출하시고, 문벌을 폐하고 인재를 골라 중앙집권의 기초를 확립하여 백성들의 신용을 얻으시고, 널리 학교를 설립하여 인민의 지식을 깨우치게 하시옵소서. 외국의 종교를 유입하여 교화를 돕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④ 오늘날 양적(洋賊)의 침입을 당하여 국론이 교(交)와 전(戰)으로 양분되어 있다. 그런데 양적을 공격해야 한다는 주장은 내 나라 쪽 사람 즉 국변인(國邊人)의 주장이고, 양적과 화친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국 쪽의 사람 즉 적변인(賊邊人)의 주장이다. 전자를 따르면 나라의 의상지구(衣裳之舊), 즉 조선 문화의 전통을 보전할 수 있지만, 후자에 따르면 인류가 금수의 지경으로 빠지고 말 것이다. 이 점이 양적과 싸우느냐 화친하느냐 하는 차이가 된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근본을 잡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이런 상황을 알 수 있는 일이다.

⑤ 저들이 치란(治亂)하는 근원과 부강해지는 근본은 튼튼한 군함과 예리한 대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제도로 상하가 한 마음이 되고 교양이 적절하며, 학교를 개설하고 서원을 널리 세우며, 기예를 중시하고 시험을 보지 않음으로써 인간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시키는 데 있다. 또한 농학을 강구하고 수로를 뚫어 척박한 땅을 좋은 밭으로 바꿈으로써 땅의 이로운을 한껏 발휘하게 하며, 철로를 부설하고 전선을 설치하며 세금을 가볍게 하고 상무를 보호함으로써 상품이 원활히 소통되게 함에 있음을 알았다. 학교에서 인재를 배양하고 의회에서 정치를 논하며 군민이 한 몸이 되고 위아래가 한마음이 된다. 그것이 그들의 본체이다. 선박·대포·총·수뢰(水雷)·철도·전선은 그것의 작용이다.

[3.2] 다음 <보기> ⑥의 주장에 근거하여, 위 제시문 (가)와 (나)의 주장을 각각 2~3 문장으로 비판하시오.

<보기>

⑥ 19세기 말 우리는 서세동점의 흐름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을 겪었다. 서세동점의 영향으로 외국의 좋은 문화가 수입되기도 했지만,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해 우리의 고유 문화가 파괴되는 부작용도 있었다. 결국 민족주의와 세계주의(globalization)는 지나치게 발현되면 상호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수도 있지만, 문제 해결의 열쇠는 세계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가치와 민족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보완적으로 정립하는가에 있다.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는 서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끌어당기고 만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두 가치는 구분이 가능하며 동시에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